

자연보존과 산림*1

李 德 鳳*2

The Conservation of Nature in View of Forestry*1

Duck Bong Lee*2

1. 자연보호 운동의 발단

세계의 人口 특히 동남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주택이 대량 건축되고 산업이 급속적으로 공업단지와 여타 공장이 수없이 건설되게 됐다. 그에 따라 자연계는 점점 파괴와 몰락을 면치 못하게 됐다. 부수적으로는 각종 공해가 증가 일로로 치닫게 되어 이대로 가다가는 자연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인류의 생존에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야생 동식물 중에는 이미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이른 종류가 허다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IUCN(국제자연보존연맹)의 1976년 통계에 의하면 조류 345종, 포유류 200종, 양서류와 파충류 80종 그리고 2만~2만 5천종의 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런 실정에서 유럽에서는 이미 1백년전부터 자신들에 의하여 파괴된 자연을 原狀대로 회복시키자는 운동이 일기 시작하여 1948년 10월엔 UNESCO와 「프랑스」 정부와의 협력으로 IUCN의 창립을 보게 됐다. 이 기구는 1976년 3월 현재 100 나라의 국가기관과 사설단체를 합해 430 단체에 달하는 회원이 가입된 큰 국제기구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학자가 자연보존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63년 12월에 한국자연보존학술조사위원회를 창설하였고, 그뒤 수차 회의 이름을 바꾸면서 1966년 7년에 IUCN에 가입 1974년 2월에 사단법인 한국자연보존협회로 개편하면서 각시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정부로부터 기금의 지원을 받아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자연보존협회의 사업

1. 위에서 언급한 멸종 위기에 있는 생물의 종족을 조사하고 보호하는 사업.

2. 자연과 자연자원 보존에 관련된 지식과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계몽과 교육과 훈련 등에 관한 홍보교육사업.

3. 인간과 자연과의 관련성을 구명하며 이에 관한 생태학적 원리를 찾아내는 연구 사업.

4. 모든 국민의 복리와 학술적 가치를 위하여 어떤 특정 지역을 자연 상태대로 보존하기 위한 국립공원의 설치를 장려하며 이를 돕는 사업.

5. 각국의 자연보존에 관련된 법률, 규칙, 규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 제정을 관계당국에 건의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연보존협회는 잡지 "자연보존"을 발행하여 전국 각 기관과 고등학교에까지 무료배부하고 있으며 경관이 아름답고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택해 해마다 수십명의 학자를 동원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편내고 필요한 사항을 관계당국에 건의한다. 또 팸플릿을 백여만장씩이 전국 각 국민학교와 중학교 학생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올엔 「포스타」를 만들어 배부할 예정이다. 또 각 지부에서는 해마다 10여개교씩을 택하여 강연회도 열고 자매결연도 맺고 있다. 또 해마다 큰 호수에 어린 민물고기 수십만 마리를 放養하는 행사도 해 왔다. 그 밖에 자연보존에 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조사하여 고발도 하고 당국에 시정책을 건의도 한다. 국립영화제작소의 지원으로 자연보존을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하고 있으며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에 자연보존과목을 설치하도록 문교부장관에게 건의하였고 이의 관철에 힘쓰고 있다. 각급학교의 학도호국단 안에 자연보존에 관한 부를 두어 학생으로 하여금 자연보존 활동을 할수 있도록 역시 문교부장관에게 건의 하고 있다. 전국 각군, 각면에 자연보존 시범학교를 지정 자기고장에 알맞는 특색 있는 활동을 벌이도록 하는 일도 추진하고 있고, 각도에 생태학 및

*1 Symposium held in August 4, 1977, Kyong Sang University, Jinju

*2 韓國自然保存協會 會長

분류학적 자연교육원은 설치하여 학생은 물론 일반국민에게 자연계에 있어서의 물질순환의 理法과 생물계의 미묘한 조화, 평형의 법칙을 다룰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 조사와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한가지 중요한 일은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 외에 철학적인 면에서 자연인 인간과의 조화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形而上學的 탐구가 도든 사업에 앞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자연보존협회는 자연보존과 자연자원보호를 위하여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실효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범 국민적 호응이 없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조상적부터 자연의 혜택을 한없이 받으면서 살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더럽혀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행위를 반성하고 자연과 자연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산림 그위대한 자연성

그러면 자연과 산림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 산림도 물론 자연의 일부임에는 틀림 없으나 산림은 자연의 大宗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산림이 울창하면 모든 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不可缺한 공기와 물이 남고 깨끗해 진다.

그뿐 아니라 산림이 울창하면 각종 동물이 서식하고 갖가지 식물이 무성하여 자연보존의 목적을 대부분 달성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에는 산림이 없으면 들머가 없고 문명이 없으면 산림이 없다. 격언이 생겼다. 또는 산림은 지상최대의 잔식이라고도 알려오고 있다. 따라서 아름답고 장엄한 산림은 또한 인류조상의 필수지라고 한다. 인류는 산림 속의 동물을 기치로 하고 문명과 연관 일과 나무열매를 食料로 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래서 그자손인 우리들도 조상의 일고향인 산림이 그리워 시간과 비용만 허락하면 산을 찾아가 떠난다. 도시인의 이와같은 山林에의 동경은 각종 공해가 범람하는 도시를 잠시나마 떠나서 청신한 공기와 물과 경치를 맛보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옛 조상들이 山林 속에서 살던 그 유전적 정신이 후예인 우리들의 혈관 속에 맥맥히 흘러서 저절로 산림으로 밀려가 돌려지는 歸屬性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山林이 적절, 간접적 다방면의 효용 이외에 근세에 와서는 관광자원 휴양자원으로 크게 작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산림의 偉大性에

서 또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탄산가스의 吸收消化다. 급속한 人口의 팽창과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류 호흡을 통해서 排出되는 탄산가스공공 汚穢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탄산가스, 火山 폭발에서 분출되는 탄산가스는 막대하며 이로인해 대기중에 집적되는 含有量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大氣의 온을 이루어 도시의 「스모그」 현상을 일으킨다. 어떤 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수십억씩 계속되는 올 여름의 폭염이 大氣中 CO₂의 過多한 함유량때문이라고도 추측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권위있는 학술회의는 시기 2천년~2150년까지에는 탄산가스의 양이 지금보다 4~8배로 늘어날것이고 지구의 기온이 평균 섭씨 6~9도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되면 바닷물의 온도도 상승하여 水位가 약 90cm정도 높아지 낮은 지역의 큰 도시는 홍수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력하여 될 수 있는대로 석탄과 석유의 사용을 억제하고 원자력이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구사회는 破局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결론을 내었다고 한다. (原子力은 그 전체치리가 또한 큰문제)

대기온도의 상승은 북극의 빙산을 녹여 바다 수면의 상승을 높이고 그결과 지구의 혼란을 더욱 가중 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위험은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지구의 산림을 더욱 무성하게 보호 육성해서 이 과잉성태의 탄산가스를 흡수 소화시키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 탄산가스가 식물에 의해 흡수되면 결국은 탄소동화작용에 의하여 분해되어 모든 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고 따라서 가위 일거양득의 방안이 되는 셈이다.

4. 국립공원의 보호가 아쉽다

스위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자기나라의 경관이 수려하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山林 지역을 택하여 국립공원 또는 자연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을 갖추고 내외의 관광객을 유치, 자기나라를 널리 소개도 하고 외화 획득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설악산, 한라산등을 비롯한 12곳의 국립공원을 설정하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물려드므로 길을 내고 여관을 건축하고 대전을 설치하여 마치 도시의 한 街衢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관광객과 등산인이 물려드니 그들의 편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시설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때때로 관광지 개발이라는 미명하여 과잉 시설로 인하여

자연 경관이 파괴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山水의 絶景이란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조화의 신비를 느끼는데에 본연의 묘미가 있는것이 아닌가 한다. 자동차나 「케이블카」를 타고 꼭 올라갔다가 내리올라던 옛 사람이 말을 타고 山구경하는 것을 수박 겉핥기처럼 여겨 走馬看山이라고 비웃던 것보다도 밧배나 우습고 무의미한 일이 아닐수 없다. 차라리 그 山경치에 잘 조화되는 관적한 목조건물을 세우고 그 山에서나 나무와 기타 식물, 광물, 광물 또는 특산물을 진열하고 설명서를 부치고 또 그 山에 관련된 역사와 전설, 또는 동식물의 생태등을 담은 영화나 슬라이드를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교육장으로 이용한다면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산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나라에는 국립공원 이외에도 도처에 경계 절승한 山川이 얼마든지 있다. 산림만 울창하다면 과연 금수강산이란 표현이 제적인 山의 나라다. 세계의 공원이란 일컫는 「스위스」역 바다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3년이 바다로 물러 썩어있어, 산의 기묘함과 계곡의 아름다움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환경의 선명한 변화를 갖췄으며 게다가 바다의 웅장함마저 곁드렸으니 잘 가꾸기만 한다면 이 나라야말로 세계의 공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으뜸가는 요소가 더불어난 산림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때, 아무리 좋은 환경지라고 할지라도 만일 산림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곳은 분자 그대로 살롱정하게 되어 관광지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말것이다.

5. 산지 개발과 자연보존

개발과 보존 사이에는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 일본의 성공한 토산업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즉 그는 말하기를 「일본 열도의 중앙을 달리는 산악지대를 인공적으로 파헤쳐서 평평한 석토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말하자면 국토 개조 계획안을 제시한 셈이다. 아마도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만원 상태이고 할때시 궁이대책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독자가 평하기를 「모세가 아무리 성품한 기업인이라고 하지만 자연이 몇 억만년이나 걸려서 이룩해 놓은 일본열도의 형태를 어떤 개인이 뜻에 의하여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획은 자연을 보호하기 보다 자연을 파괴하는 편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그 평자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동경도내에서 수년 전까지는 부사산이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갠 날

아침에는 부사산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공해 상황이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평자) 보기에는 공해가 개선됐다고 하기보다는 더욱 악질의 공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가장 유해한 공기 오염을 결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구에 일본의 공기는 인간이 호흡하기 어려운 한계 까지 오염될지도 모르고, 일본의 내와 강의 물은 음료수로 마시기 어려운 정도 까지 될지도 모른다. 우리들의 시력은 공기가 투명해서 잘 보이기 때문에 공해가 개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수가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공해의 발생이 적어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과학적인 연구와 조사를 철저히 해본다면 오염의 상황이 이전보다도 악화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고 하였다.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 시사되는게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수년전만 해도 매년 2%의 人口 증가율로 70만명씩 불어나 한해에 大邱市만한 人口가 불어나는 셈이라고 걱정했는데 그동안 가족계획이 잘 진행되어 요새 신문을 보면 1%의 증가로 1년에 37만명 즉 마흔시 하나만한 인구가 탄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인구가 점점 불어나는 반면 국토는 좁아서 만원 상태인데다 동강과 기타 시설로 농경지마저 침식되고 있으니 농토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경사 30° 미만의 야산은 농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간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데 불가피한 시책이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수십 년대지 몇 백년씩 자라서 울창하게 된 산림마저 다구 벌채하고 개간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가령 태안반도의 해안지대나, 안남도 같은 곳은 옛날부터 防風林, 防潮林의 목적으로 보호해오던 산림인데 하루아침에 문벌해매되고말면 바닷바람이 직접 농촌에 불이 닥쳐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은 明若觀必한 노릇이다. 이렇게 국토의 형태를 크게 변경시키는 때는 그지방 지방의 지리, 기후, 기타 생태학적인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거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6. 물질문명의 발달과 산림

필자의 기억이 회미하나마 지금으로부터 60여년 전에 “文明의 末路”라는 과학적 공상소설을 읽은 생각이 납니다. 그소설의 줄거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즉 20세기 초 1900년으로 부터 100년후까지를 내다보면서 물질문명이 난숙한 미국의 뉴욕을 무대로하고 큰 부자들이 아방궁과 같은 저택을 짓고 아름다운 양가의 여자를 돈과 속임수로 몇명씩 사다가 향락생활을 일삼으

니 일반 대중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빈부 계급간의 빈목이 격화되어 필경 시민 혁명을 유발하게 되었다. 이 지음에 시민전쟁의 승패는 오로지 비행선대가 어느편에 가담하느냐에 달려 있기때문에 양쪽에서 비행선 지휘대장을 포섭하기 위하여 가전계교를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산자 계급의 두목과 전한 순진한 시골 청년 한 사람이 이러한 두서운 전쟁계획을 듣고 어떻게 하든 이 시민 전쟁을 막아보려고 부호들이 모여서 전략을 모의하는 비밀장소에 숨어들어가서 그 계략을 듣다가 모의 장소로 뛰어 들어가 그 계획의 증거를 호소했으나 미친놈으로 간주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필경전쟁은 더지고야 말았읍니다. 이때에 비행선대로 무산자 편에 가담하였으나 승자도 패자도 없이 약탈과 방화가 자행되고 수십만의 시민이 죽어넘어져서 시체 썩는 악취가 미만하니 그시체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새멘을 부어서 큰 산봉우리처럼 만들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부호의 모의장소에 뛰어들었던 그청년은 그동안

사키어온 부호의 집에가쳐 있던 미모의 처녀와 함께 비행선으로 뉴욕을 탈출하여 아프리카의 원시림이 우거진 곳으로 도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사치해지고 문약해지고 퇴폐적 비도덕적으로 흘러 마칠내 쇠퇴 내지 멸망의 길을 걷게 되고야 만다는 교훈이 들어 있는 소설이라고 하겠읍니다.

우리나라도 공업입국 정책의 덕택으로 국민의 소득은 높아지고 수출을 증대되고 농촌도 생활이 윤택해지고는 있지만 해방 30여년동안 정부와 민간에서 해마다 엄청난 수의 묘목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일수록 산은 황폐하여 겨우어린 나무가 부지하고 있을뿐이라 지금부터라도 온국민의 자각을 불러 일으켜 산림이 하루 빨리 울창해지야 우리모두가 정신적으로 평화스럽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있음을 같이 명심하고 산림을 아끼고 지키고 키워나가야 할것이다.